세력을 좌파로 견인해내는 것이었다. 김규식이 중심이 된 중도우파세력의 구상은 중도좌파세력과의 연대를 바탕으로 미군정의 지지를 결합하여 중도좌우세력의 독자성을 확보하고 이를 남한내 좌우합작의 완성과 미소공동위원회를 전제로 한 남북합작으로 연계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미군정의 의도는 중도좌우세력의 구상과는 달랐다. 미군정은 좌파세력을 분렬시켜 중도좌파를 미군정측으로 견인해내고, 이들을 중도우파와 결합시켜 미군정의 남한내 정치기반으로 삼으려는 것이었다. 나아가 중도좌우세력을 중심으로 과도적인 입법기구를 설치하여 재개될 미소공동위원회에서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고, 단독정부가 수립될 경우 미국의 지지세력을 확보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좌우합작운동은 미군정이 친일파 처리를 반대하는 등의 개혁거부와 남조선 과도입법의원 선거의 파행성, 좌파세력의 좌우합작 반대, 조선공산당、조선인민당、조선신민당의 3당 합당을 둘러싼 좌파세력의 분렬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었다.

중도좌우세력의 정치활동은 1947년 5월에 미소공동위원회가 재개되면서 활발해졌다. 같은 해 6월 중순에 좌우합작운동을 전개하던 세력은 시국대책협의회 발기인회를 구성했다. 7월 3일에는 정식으로 정당 및 사회단체 등의 관계자 80명이 개인자격으로 참석한 가운데 시국대책협의회를 결성했다. 김규식과 여운형이 주석으로, 정이형鄭伊衡、손두환孫斗煥 등이 연락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좌우합작위원회에 참여했던 인물이 시국대책협의회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 김시현도 시국대책협의회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국대책협의회는 중도파세력의 노선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유교、불교、천도교 등 종교계와 노동계를 망라하여 좌우합작위원회를 강화하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려고 했다. 임시정부 수립대책에 대한 제반문제를 중도파의 입장에서 정리、조정하고 미소공동위원회의 활동에 협력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중도파가 시국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함에 따라 좌우합작위원회의 활동은 지지부진했다.

시국대책협의회는 미소공동위원회가 협의대상 문제로 활동이 지지부진하고, 7월 19일에 여운형이 암살당함으로써 중도파세력 결집은 어렵게 되어 활동이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도 아무런 성과없이 결렬되고, 미국이 소련과의 합의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함으로써 시국대책협의회를 비롯한 중도파세력의 활동은 한계에 부딪혔다.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한 것은 남한 단독정부의 수립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도였다. 중도파세력은 이와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 김규식을 중심으로 좌우의 편향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노선을 지향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중도파 세력은 미소공동위원회、민주주의독립전선、시국대책협의회、좌우합작위원회의 발전적 해소를 전제로 하고 10월 1일 민족자주연맹 결성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김규식이었으며 김시현은 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했다.

하지만 민족자주연맹에는 참여한 단체들이 많아 입장도 다양하여 조직의 결성은 순탄치 않았다. 결국 논란 끝에 1947년 12월 20일에 결성되었다. 김규식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원세훈元世勳、홍명희洪命憙、김성규 등 7명이 정치위원으로 선출되었다. 김시현은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였다. 민족자주연맹의 강령과 정책은 다음과 같았다.

●강령

①우리는 새로운 민주주의 독립국가의 건국 대업을 완수하기 위해 전민족의 정신 단결을 기함.

②우리는 전민족의 평화속에서 정치、경제、문화、사회적으로 평등한 권리와 자유와 행복을 얻기 위하여 현재의 모든 애국적인 각계각층의 그 부동한 요구를 민주주의적으로 조화、통일하며 그 공통한 요구로 강력히 실천하기로 함.

③우리는 일체 사대적 의타성을 청소하고 민족적 자부심과 국가적 자주의식을 고취하여 자력 건설에 노력함.

④우리는 동포 상호간의 친화정신을 발휘하여 일체 종파적 아집과 독선적 태도를 버리고 무의미한 동족상잔의 행동을 근절하기에 노력함.

⑤우리는 민족 자주평등의 원칙하에서 연합국에 대한 친선정책을 취하기로 함.

●정책

①민주주의 제정당、사회단체와 개인을 총망라하여 어느 계급, 어느 종파의 영도성을 떠난 진정한 민족통일기구의 재편 강화에 노력함.

②남북통일 중앙정부의 조속 수립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정치단체 대표자회의의 개최를 주장함.

③친애 단결하고 호조합작互助合作하는 도의적 정신, 특히 공작과 학습을 근실勤實히 하는 신흥국민의 신작풍新作風、신도덕의 함양에 노력함.

④직장、지역별로 계몽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장함.

⑤우리는 신문화의 대중적 향상발전을 도圖하며 고유문화의 우수성을 더욱 발휘하여 새로운 민족문화의 발전을 기함.

민족자주연맹이 당면한 문제는 정부수립의 문제였다. 미국의 대외정책이 소련에 대해 강경한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한반도 문제에도 영향을 주었다.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소련과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유엔을 통해 해결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했다. 유엔은 미국이 제안한 신탁통치를 거치지 않는 한국 독립과 유엔 감시하의 남북총선거를 통한 한국통일방안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948년 1월에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남한에 파견되었다.

민족자주연맹은 조속히 남북통일선거를 실시하여 중앙정부 수립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에 대해서도 통일、자주、민주의 3대 조건의 구체적 실천을 주장하면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협조는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거일 때만 한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단독선거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족자주연맹은 미국과 소련 양국이 절충하여 남북한의 정치세력이 협상을 실시하고 양국의 협조를 촉진시키는 것이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사명이므로 남북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것을 촉구하였다.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남한의 정치지도자들과 협의하는 한편 북한과도 접속을 시도했지만 소련과 북한은 반대했다. 1948년 2월 유엔은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결정했다. 민족자주연맹은 남한만의 단독선거는 민족의 분할과 국토의 양단을 영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선거에 불참하고 통일독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민족자주연맹에는 많은 정당과 정치세력이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한 단독선거에 대한 입장은 참여를 주장하는 세력과 불참을 주장하는 세력으로 나뉘었다. 이미 선거 참여를 결정한 단체도 있었다. 민족자주연맹 내부에서 이견이 발생하자, 민족자주연맹은 3월 21일 중앙집행위원회의 회의를 열어 민족통일과 국가독립을 성실히 원조 협력하는 국가 노력에만 협조, 외국 군대 주둔을 연장하려는 기도와 행동을 배격, 단독선거와 단독정부 반대, 남북정치협상 추진을 결의했다. 남한 단독선거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민족자주연맹의 입장에 대해 김시현은 어떠한 입장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는 없지만 그가 중앙집행위원회의 일원이었으므로 민족자주연맹의 입장과 같았을 것으로 보인다.

민족자주연맹은 남한 단독선거의 불참을 결정한 후 남북지도자회의 소집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벌였다. 민족자주연맹은 1948년 2월 4일 남북통일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남북 요인의 회담을 열 것을 요망하는 서한을 김일성金日成과 김두봉金枓奉에게 발송하기로 결의한 바 있었다. 북한은 3월 25일 방송을 통해 전조선 정당사회단체대표자 연석회의를 열 것을 제의하고 남한의 정당사회단체 등을 초청한다고 발표하였다. 27일에는 김구와 김규식 앞으로 김일성과 김두봉의 연서로 두 사람을 초청한다는 내용의 서한이 전달되었다.

김구와 김규식은 안경근安敬根과 경북 안동 출신의 권태양權泰陽을 평양에 파견했다.(권태양[1913~1966] 안동공립보통교公立普通학교를 졸업하고 대구사범학교 심상과尋常科를 중퇴했으며 일본 중앙대中央大 전문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46년 김규식의 측근으로 좌우합작위원회 서무부장, 민족자주연맹 비서처 총무、중앙집행위원 등을 역임하고 1948년 전조선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의 남측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김일성과 김두봉이 북한으로 와서 문제해결을 했으면 한다는 회답을 전하자, 김구는 북행을 결심하였다. 민족자주연맹도 4월 3일 남북정치협상을 적극 지지한다는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김규식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다가 '남북협상만이 조국의 영구분단과 동족상잔同族相殘의 비극을 막는 구국의 길'이라는 저명 문화인 108명의 남북요인회담 지지성명 발표로 남북협상에 참여하기로 결심하였다.

1948년 4월 19일 김구는 단독으로 평양으로 떠났고 김규식은 민족자주연맹 긴급간부회의를 소집하여 대책을 협의했다. 김규식은 독재정치 배격, 사유재산제도를 승인하는 국가건립, 전국적 총선거를 통한 통일중앙정부의 수립 등의 5개항의 조건을 김일성이 수락한다는 의사를 확인한 후에야 민족자주연맹 대표단 16명과 함께 21일 평양으로 떠나 협상에 참여했다. 김시현은 민족자주연맹 대표단에 참가하지는 못하였다.

4월 19일부터 모란봉극장에서 전조선 정당사회단체 대표자연석회의가 예정대로 개최되었다. 회의에서 미소 양군의 즉시 철군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을 결의、채택했으며 단선단정반대 전국투쟁위원회 결성을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쳤다. 이어 27일부터 전조선정당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가 시작되었으며 15인회담, 김구、김규식、김일성、김두봉의 4김회담 등이 개최되었으나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결국 남북한은 각각의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민족의 과제였던 자주적인 통일민족국가 수립은 좌절되었다.

김시현은 해방정국 초기에 정치활동을 벌이기보다는 귀환동포와 국외동포를 원호하고 구제하는 활동을 펼쳤다. 1947년 미국과 소련의 대외정책으로 한반도 문제가 난관에 봉착하고 자주적인 통일민족국가 수립의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직접 정치활동을 벌였다. 그의 정치노선은 좌우대립을 극복하여 좌우합작으로 민족국가를 수립하려는 중도우파의 입장이었다. 이를 위해 좌우합작위원회, 민족자주연맹에 참여하여 활동했다.

<權五焄>

담백한 맛의 명문
도봉산원조 10년전통
山두부집
대표 權五玄

도봉산대등산로입구
등산객눈길이팔리고
하산자에겐 참새방앗간!'
100명 동시 예약 가능

서울 도봉구 도봉동 411-1
전화 02) 954-1183 · 1184
HP) 010-8003-6996